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梁 聖 宗

目 次

- I. 머리말
- II. 分野別 濟州島 研究의 現況
- III. 耽羅研究會의 活動
- IV. 맺으면서
- 부록 : 日本에서의 濟州島關係文獻 目錄

I. 머리말

① 濟州島와 日本과의 歷史的 關係

日本은 地理上 또는 歷史·文化的으로 外國으로서는 濟州島와 가장 가까운 關係에 있다. 日本의 가장 오랜 歷史書인 『古事記』, 『日本書紀』(7世紀)를 비롯하여, 8世紀의 『續日本紀』등에서도 耽羅 關係의 記錄을 볼 수 있어, 옛적부터 대단히 密接한 相互交流가 있었다는 것을 쉬 알 수 있다.

그러나, 그후의 歷史記錄을 더듬어 보면 中世에 내려가 倭寇의 濟州侵入, 朝鮮朝時代에 이르러 高得宗이 外交使節로 渡日한 記錄 등이 있을 정도이고 韓末에 日本人들의 漁業 操業事件을 거쳐 日本의 植民地가 된 狀況과 過程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다.

② 日帝의 濟州島에 關한 調查研究

日帝의 濟州島에 대한 調查로서는 그들이 植民地化를 위한 政策의 一環으로 濟州島의 自然環境, 地質, 動植物, 氣象 등에 대하여 調查한 官製報告類가 大部分이며, 그밖에 濟州島의 島勢, 農業, 水産, 畜産, 人口, 生活狀態 등의 調查記錄이 있다. 예컨대, 『未開의寶庫濟州島』(1924), 『生活實態調查 其二 濟州島』(總督府, 1929), 森爲三 『濟州島所生植物分布について』(1928) 등이 出版되었고, 또 有名 文人들의 濟州島 旅行記인 『靑丘雜記』(安倍能成, 1932),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地理學者 柁田一二씨의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1976)는 現時點에서도 學術的인 價値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또한 高橋亨씨는 濟州島를 “民謠의 보배섬”이라고 불렀고, 收集한 濟州島 民謠는 400曲이 된다. 여기에는 固有한 濟州島 方言이 그대로 표기되고 있다.

1935년에 이르러서 當時 京城帝大 在學中이던 泉靖一씨가 漢拏山 등반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濟州島에 魅了되면서, 자기의 專攻을 日本文學에서 文化人類學으로 바꾸어, 濟州島의 철저한 現地調査(1936~37年)를 통하여 卒業論文 『濟州島— 其의社會人類學的研究』를 發表했으며, 그것은 1966년에 『濟州島』(東京大出版部)로 出版되었다. 그의 『濟州島』는 제주도연구의 高典이라고 正평을 얻고 있다. 이 著書는 오늘날 日本에서 濟州島 研究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第一의 入門書로, 基本文獻으로 평가받고 있다. 近來의 學術的인 濟州島 研究는 泉靖一씨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II. 分野別 濟州島 研究의 現況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泉靖一씨의 影響을 받은 弟子들에 의하여 學術的

인 濟州島 研究가 이어져 그간에 단편적인 論文이 發表된다. 특히 文化人類學 分野에서 關心이 높아 研究者들의 現地調査가 시작된다.

한편 1970~71년에 걸친 濟州大學校 玄容駿 教授의 東京大學 大學院 留學은 濟州島와 日本간의 學術交流의 바탕을 마련하는 契機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1970年代에서 現在에 이르기까지 現地調査·研究로 濟州島를 訪問하는 日本의 많은 研究者들이 玄教授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면 分野別로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를 살펴 보기로 한다.(論文·書名 등은 日本語 表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諒解바란다.)

① 文化人類學(民俗學) 分野

泉靖一씨의 系列의 佐藤信行씨가 1972년에 濟州島를 訪問, 濟州島의 家族과 親族의 形態·構造 등을 現地調査하여 「濟州島の家と家族」(1972)와 「濟州島の家族と親族—O村의 事例から」(1973)를 發表한 바 있다.

또 日本 國立民俗博物館의 櫻井哲男씨는 1972~89년에 걸쳐 다섯 차례나 訪島하여 濟州島 東部の 한마을(O村)에 焦點을 두고, 그 마을의 日常生活에서 사용하는 “소리”를 音樂 音符로 記錄하는 民族誌를 저술하였으며, 이어 『ソリの研究』(1990)를 出版했다. 이것은 音樂人類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研究分野의 開拓이라고 볼 수 있어 크게 注目を 받고 있다.

1980年代에 들어서면서 濟州島 研究는 폭이 확대되어져 간다. 東洋大學의 松本誠一씨는 1984年에서 1988年까지 세 차례에 걸쳐 濟州島에서 家族 構造에 관하여 現地 調査를 하였다. 그 결과 濟州島의 東西마을의 世帶規模를 對比하는 研究를 하여 1990년 11월에 濟州大學 耽羅研究所 主催 學術講演에서 그 要旨를 발표하고 「濟州島家族論의 檢討—世帶規模의 東西差」(1990)라는 論文을 發表했다.

그는 이 論文 속에서 日本民俗學(社會人類學) 分野에서 濟州島 研究 現況中 竹田且, 津波高志씨들의 研究 業績을 列舉하면서 언급하고 있으며, 또 1987年에 이미 「日本における文化人類學的韓國調査の展開 1960~1980」라는

論文에서 日本에서의 韓國學 研究(民俗學分野)를 年代別로 整理한 바 있다.

琉球大學(沖繩)의 津波高志는 1984년에서 85까지 1년간 濟州島에 滞在하면서, “相續과 繼承” 關係를 研究하였고, 日本의 沖繩과 濟州島를 比較하는 연구를 繼續하고 있으며, 「分居形態から見た濟州島家族」(1990)을 發表했다. 또 그는 琉球大學의 講座에서 濟州島의 文化·社會構造에 대한 講義를 設講하고 있다.

한편 出口晶子씨는 東아세아의 海民들의 生活形態와 그들의 交流를 研究하는 過程에서, 濟州島의 태우를 調査, 그 構造 操船法, 利用狀況 周邊과의 比較를 시도하여 「韓國濟州島の筏船」(1988)을 發表했다.

그 밖에 植村幸生씨가 「在日韓國·朝鮮人の巫俗儀禮とその音樂」을 發表, 大阪에 居住하는 在日 濟州 사람들의 「朝鮮寺」와의 關連, 儀禮過程 등을 調査 記錄하고 있다.

② 民家·建築 分野

建築分野에 있어서는 韓國社寺 建築의 研究者인 藤島亥治郎씨가 그의 論文에서 部分的으로 濟州島의 建物에 관한 것을 쓰고 있다. 特히 「去リル日の濟州島」에서 아-치型 다리(めがね橋)에 대하여 言及하고 있다.

또한 野村孝文씨는 「朝鮮の民家」(1981)에서 “濟州道の住宅”이란 題目으로 論하고 있다.

1986년에 들어 女流建築家 若林弘子が 3차례에 걸쳐 濟州島를 訪問하면서 高床式 建物과 벼 栽培가 濟州島를 거쳐 日本으로 傳播되었으리라는 假說 밑에 高床式 建物を 찾는 한편, 濟州島의 民家を 實測·記錄하였다. 그러는 도중에 寸法の 基本이 人體尺에 있다는 것을 發見, 「濟州島草屋の建築尺度」(1988)를 發表했다.

1989년에는 芝浦工大 建築科 畑聰一 교수등이 漢陽大팀과 共同으로 鳳城里와 下院洞에 소재하고 있는 民家에서 그 傳統的인 原形과 現代에로의 變化를 實態調査하여 이것을 東아시아의 沖繩, 對馬, 奄美郡島, 台灣 등과 比較 研究하여 「濟州島·樂園の分棟居住」(1989)를 發表하였다. 그 밖에 日

本文部省의 佐口木史郎씨는 濟州島 民家を 本土와의 比較에 重點을 두고 研究하고 있으며 「濟州島」第3號에 掲載된 若林弘子, 松本誠一씨의 座談會 “濟州島の民家とその住い方”에서 濟州島の 民家に 대한 자신의 所感を 吶々하였다.

③ 歷史 考古學 分野

考古學에서는 江坂輝彌(慶應大)가 1971年에서 1987년까지 무려 40회에 걸쳐 濟州島の 現地를 踏査하였으며, 宋錫範씨와 만나 1973년에는 郭支 貝塚를 發見, 濟州島에서 紀元 1世紀頃의 無文土器 貝塚를 確認했으며, 그후에도 繼續하여 濟州의 古代 遺跡를 實地 調査하고 있다.

宋錫範씨는 日本에서 1977년부터 「まんだ」誌에 「濟州島のドメン」(8號), 「古代國家 耽羅時代の濟州島」(9號), 「濟州島の先住民」(12號) 등에서 耽羅 古代史를 解説하고 있으며, 「濟州島の支石墓」(1979)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을 모아 1984년에는 「濟州島古代文化の謎」를 出版하였다.

歷史分野에서는 1985年 森公章씨가 古代 耽羅에 관한 研究 「耽羅方朮考」에서 日本 古記録에 나타나는 耽羅 전북의 交易를 논하면서 그 古記録의 成立時期를 天平10年(738年)頃으로 推定하였으며, 이어서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에서는 耽羅 古代史를 5期로 나누는 時期區分을 試圖하였다.

1989年에 筧敏生씨는 「耽羅王權と日本」이라는 論文에서 國家的 通交關係를 檢討하여 耽羅王權의 特質을 “突出한 存在가 아닌 諸豪族과 同一한 百濟官位를 가진 王權이었고, 그것으로 보아 百濟에로의 歸屬意識이 깊었다”고 指摘하였다.

名古屋大學의 高橋公明씨는 日本의 中世史研究를 專攻하는 學者로 濟州島에도 많은 關心을 돌리고 있다.

그는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1987)에서 倭人和 濟州島民의 交流의 密接性을 強調하는 한편, 全羅道—濟州島—北九州에 이르는 또 하나의 “바다의 길”이 있었을 것이라는 假說을 想定하였다. 또,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1987)에서는 東亞세아에서의 濟州島의 特異성과 島民들의 活動을 確認하여 國家를 넘어 海民들의 交流 側面을 考察하고 있다.

1990년에는 濟州가 낳은 朝鮮朝의 最高 高官인 高得宗에 대하여 연구하고, 「高得宗について」(1990)에서 그 時代의 中央과 濟州島와의 關係를 論하고 있다.

또한 最近에 있어서는 서울에 留學中인 藤永壯씨가 海女事件을 研究하여 「1932年の海女のたたかい」를 濟州島研究會에서 發表하였다.

그밖에, 岡田英弘씨는 「元の順帝と濟州島」에서 高麗에로의 合併을 簡略하게 논하고 있으며, 森克己씨의 「日宋交通と耽羅」가 있다.

在日 濟州人 學者로서는 花園大學 姜在彦이 「濟州島 流配期の 金允植」에서 「續陰晴史」에 의거하여 當時의 濟州島와 그의 流配生活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4·3事件에 관한 書籍들도 出版되었다. 1963년에 金奉鉉·金民柱 編 「濟州島人民들의 4·3 武裝鬭爭史<史料集>」가 발간되어 4·3의 資料的 文獻이 되고, 그후 1978년에 金奉鉉 著 「濟州島血の歴史」로 요약 발표되었다.

그 10年후인 1988년에 John Merrill의 英文 論文이 文京洙씨 日譯으로 「濟州島 四·三蜂起」(1988.3)가 出版되었으며, 여기에는 美國側의 4·3을 보는 觀點이 提示되고 있다.

또 이어서 4·3 40周年 追悼記念講演會 內容을 담은 「濟州島 4·3事件とは何か」(1988.11)도 發刊되어, 여기엔 큰 話題를 일으킨 行事의 記錄도 다루고 있다.

이 밖에 코리아研究所(東京)가 發行하는 雜誌 「코리아研究」 第10號(1988年)에서는 座談會 〈濟州島 4·3事件とは何だつたのか〉를 特輯으로 編集하였으며, 여기에서 4·3을 實際로 體驗한 사람들이 事件에 대한 率直한 所感を 이야기하고 있다.

④ 地理學, 地質, 洞窟分野

岡田一二씨의 地理研究를 이어 받는 것으로 立正大學 名譽教授 高野史男씨를 中心으로 하는 同大學 地理學 教室 멤버들이 1984~88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現地 調査結果가 「濟州島の地域研究」(1988)로 발표되었다. 여기에

는 ①「濟州島の水文環境」(高村弘毅), ②「濟州島の柑橋生産」(澤田裕之), ③「濟州島の觀光」(大塚昌利) ④「濟州島における商業中心地の配置と機能」(鈴木厚志) 등이 說得力이 있으며, 1991년에도 다시 現地調査하여 그후의 發展과 變化相을 살피면서 더한층 補完된 報告書를 작성할 豫定이다.

高野史男씨는 耽羅研究會의 「濟州島」 1, 2號(1989)에서 「耽羅古代地理考」를 考察하였으며, 독일의 著名한 地理學者 Lautensach가 發表한 1930年代의 濟州島에 관한 論文「濟州島地誌」를 日本語로 翻譯한 바 있다.(「耽羅研究通信」 第12號, 1987年)

地質學 洞窟學 分野에서는 小川孝德씨가 韓日合同으로 數次에 걸쳐 濟州島의 洞窟을 測量·調査하고 있다.

또, 澤勳씨는 「濟州火山島の噴出過程と萬丈窟年代との比較」(1988)를 發表하였다. 이것은 萬丈窟 研究의 첫 報告書가 된다.

⑤ 神話·說話·民謠 分野(口傳文學 分野)

日本の 著名한 神話學者인 鳥越憲三郎씨는 日本에로의 稻作文化의 傳播途中에 位置하는 濟州島에 注目하여 濟州島 研究를 시작하였으며, 1988年 訪島時에는 講演會를 開催하는 등 濟州島의 研究者들과 交流를 깊게 해 왔다.

그의 研究는 「蛇神と兎山里の事件」(1988)에서 甕 信仰을 西歐神話와 比較하면서 肯定的으로 논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朝鮮半島にみる卵生神話の系統」, 「馬韓傳 “蘇塗”의習俗」 등에서 濟州島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鳥越憲三郎씨는 耽羅研究會의 設立을 契機로 하여, 日本, 大阪에서 濟州島에 관한 綜合的인 研究를 目的으로 1987年 12月 日本耽羅學會를 創立하였으며, 日本의 關西地方을 中心으로 濟州島 研究를 위한 活動의 基礎를 만든 業績은 높이 評價해야 할 것이다.

한편, 加藤泰씨는 「濟州島の二つの神話の構造分析」(1979)에서 자춘비와 뽕당이 2개의 說話 構造와 意味를 통하여 하나의 特定한 形式에 따라 展開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다.

그 밖에 日本의 著名한 作家인 司馬遼太郎씨가 濟州島 紀行文을 그의 連作「街道を行く」의 第28卷 째로 〈耽羅紀行〉을 發刊했다.

民謠에 있어서는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高橋亨씨가 1929년부터 濟州島民謠를 모으기 시작하여 400曲 가까이 수집, 本人이 돌아간 후 「濟州島の民謠」로 1972년에 그의 弟子들에 의하여 出版되었다.

그 밖에 服部龍太郎씨가 濟州島 民謠를 수집, 日本語譯하여 「濟州島民謠紀行」(1972)을 發刊했다.

⑥ 其他

〈農業 分野〉

濟州大學校 農科大學과 日本의 東北大學 農學部와의 姉妹結緣은 濟州·日本間の 學術交流를 깊게 하는 데 特記할 수 있다.

1991年 中으로, 岐阜大學 農學部에서 〈濟州島の農業生態學的 調査〉를 하기 위하여 準備중에 있다.

⑦ 在日 濟州人들의 文藝·著作活動

〈文學〉

在日 濟州島 出身作家들의 創作小説, 記錄文學 作品 中 代表的인 것을 整理한다.

4·3을 主題로 創作하고 大佛次郎賞을 수상한 金石範은 「火山島」(1983)와 「故國行」(1990), 「順伊ばさん」(玄基榮) 「順伊삼촌」 번역 「鴉の死」(1973) 등이 있다.

在日 濟州人의 삶을 作品化한 金泰生은 「骨片」(1977), 「私の日本地圖」(1978) 등이 있다.

在日 濟州人을 소재로 梁石日은 「狂躁曲」, 「祭祀」, 「運河」 등이 있다.

猪飼野에 넘어온 濟州人들을 主人公으로 한 短篇을 발표한 元秀一의 「キンモクセイ」(1988)는 NHK Drama Special에서 放映되었고, 「猪飼野物語」(1987)가 있다.

우리 글로 小説을 쓰고, 주로 本國에 發表한 金吉浩는 「汚染地帶」(1989)로 「現代文學」에 데뷔하고 「豊歌」(「文學精神」, 1987)를 발표했다.

芥川賞을 받은 李良枝는 「はずきめ」(1983) <國譯은 「海女」>를 발표했고 「由熙」(1988)로 芥川賞을 受賞했다.

記錄文學(Fiction) 部門에서는 在日 르브作家 金贊河가 「異邦人は君か代丸に乗って一朝鮮人街猪飼野の形成史」(1985)에서 在日 濟州인들이 君代丸을 타고 日本으로 건너와 猪飼野에 定住하는 過程을 歷史적으로 記述하고 있다.

또한 金榮과 梁澄子가 共同으로 濟州島에서 日本에 건너온 海女들로부터 인터뷰한 內容을 「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1988)로 出版했다.

Ⅲ. 耽羅研究會의 活動

다음으로 耽羅研究會에 관하여 약간 言及하기로 한다.

자기 故郷 - 濟州島에 대하여 歷史, 文化 등을 研究·學習하는 同時에 在日 島民들에게 祖上의 땅인 濟州島를 紹介하며, 愛郷心을 涵養하는 데 寄與하고자, 1985年 4月に 濟州 출신 有志들에 의하여 耽羅研究會가 發足되었다.

日本에서는 在日 濟州인들이 주로 大阪, 東京에 많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出身마을 單位로는 親睦會를 組織하여 活潑한 親睦活動을 하면서 자기 故郷마을과도 親密한 連繫를 가지고 왔다. 東京에서는 일찍이 經濟人이 中心이 되어 濟州開發協會가 結成되어 本島 開發에 이바지해 왔으나, 文化的 部門에는 그리 힘을 쓰지 않았으므로 濟州島에 관한 學術的인 文獻이나 研究書 등에 關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尙잡이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우리들은 耽羅研究會에서 우선 濟州島의 歷史·地理·傳統民俗 등에 대한 理解를 깊게 하기 위하여 讀書會로부터 시작했으며, 同時에 「耽羅研究通信」을 發刊하여 金泰能의 「濟州島略史」, 張漢喆의 「漂海錄」, 濟州大 耽羅

文化研究所의 「濟州研究概觀」, 金錫翼의 「耽羅紀年」(第1號) 등을 翻譯 掲載하여 在日 濟州人 二·三世들에게 紹介해 왔다.

그러한 過程에서 차차 日本人 濟州島 研究者들에게도 耽羅研究會가 알려졌고 本島의 濟州大 耽羅文化研究所와도 交流를 맺었으며, 研究資料도 交換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1989년에는 耽羅文化研究所의 梁淳秘 所長의 訪日이 있었는데 濟州島 流配文化에 관한 講演會 開催를 契機로 하여 東洋大 AA 研究所와도 交流를 갖게 되었다.

한편 濟州 MBC의 日本 取材 때나, 日本의 NHK, 日本放送 TV 등의 濟州島 取材時에도 많은 便宜를 提供해 왔다.

耽羅研究會는 1988년에 機關誌 「耽羅研究通信」을 더욱 發展시켜 雜誌 「濟州島」를 發刊하기로 하였으며, 濟州島의 歷史와 文化를 폭넓게 다루게 되었다. 그리고 濟州島의 主要 新聞記事를 報道하는 「濟州通信」을 發刊해 왔는데, 1990년말에 「耽羅研究會報」로 改題 發行하고 있다.

雜誌 「濟州島」는 1號가 發刊되자 朝日·每日新聞에서 紹介되었고 在日 濟州人 社會에 널리 알려졌을 뿐 아니라 他地方 사람들로부터도 海外에서 韓國의 한 地方의 郷土誌가 發刊되었다고 큰 關心事가 되었다.

한편 4·3事件 40周年을 맞이하여 純粹한 愛郷, 愛族心에서 事件의 眞相 究明과 犠牲者들을 慰靈하는 追悼 講演會를 在日 濟州人 有志들과 共同으로 開催하였으며, 앞으로도 日本에서 할 수 있는 4·3 關係資料의 蒐集을 꾸준히 繼續할 豫定이다.

耽羅研究會는 濟州島 研究와 關聯하여 훌륭한 濟州島 文獻을 〈耽羅叢書〉로 發刊해 나갈 것이며 이미 第1卷·第2卷은 出版, 内外의 關聯資料들을 蒐集하며, 장차 東京都內에 “濟州島 文化 資料室”을 設立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東京에 있는 耽羅研究會의 資料室을 찾으면 濟州島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지 갖추어져 있다는 그러한 學術 文化空間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在日島民들뿐만 아니라 濟州島를 研究하는 日本의 學徒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 現況

耽羅研究會에서 翻譯出版· 掲載한 濟州島關係 著作· 論文

① 〈耽羅叢書〉 刊行

第1卷 「濟州島略史」(金泰能 著· 梁聖宗 譯) 1988年 2月 18日

第2卷 「漂海錄」(張漢喆 著· 宋昌彬 譯) 1990年 12月 25日

② 〈翻譯〉 掲載(「耽羅研究通信」)

ㄱ. 「濟州研究概觀」(歷史· 考古學分野)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耽羅文化」 第2號)

ㄴ. 「耽羅紀年」(第1卷)

(金錫翼 著· 李益雨 譯)

ㄷ. 「濟州島地誌」

(Lautensacha(獨人) 著· 高野史男 譯)

③ 雜誌 「濟州島」 發刊

第1號 1989年 4月 1日, 第2號 1989年 12月 1日, 第3號 1990年 6月 1日

④ 「濟州通信」 發刊

1989年 5月號~1990年 4月號

(濟州道에서 發刊하는 新聞의 主要記事를 日本語譯으로 報道)

⑤ 「耽羅研究會報」 發刊

第1號 1990年 12月 1日

IV. 맺으면서

이 報告書는 1945年 이후 1990년까지 日本에서 發表· 出版된 濟州島의 研究論文· 書籍들 中, 入手할 수 있는 것을 모아 간단히 整理해 본 것이다.

日本人 研究者들의 勞作을 主로 하고, 在日 濟州人들의 著作들도 같이 다루었다.

앞으로도 日本에서의 濟州島 研究는 깊어질 것이므로 점차 補完해나갈 것이며, 그것은 耽羅研究會의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 믿는다.

끝으로 耽羅研究會는 앞으로도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와 濟州島研究會, 그리고 그 밖의 研究所와 學術團體들과도 交流를 긴밀히 할 것이다. 日本에 있는 우리들은 특히 濟州島와 日本 사이에서 學術交流의 징검다리가 되어 耽羅學(濟州島學)의 定立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을 祈願하는 바이다.

(이 報告書 作成에는 高橋公明, 松本誠一, 若林弘子, 宋錫範 諸氏들의 協력이 컸었다. 이에 깊은 感謝드린다.)

〈附 錄〉

文化人類學(民俗學) 分野

泉靖一 (IZUMI Seiichi)

- ① 『濟州島』(著作集に再録) 東京大學出版部 1966年 5月
第一部 濟州島民族誌(卒論)
第二部 東京における濟州島人
第三部 濟州島における三十年
付 濟州島關係文獻目錄
- ② 「ふるさと濟州島」(著作集に再録) 『世界』 1970年 4月號 293號 pp.245~256 ※金石範氏との對談
- ③ 「濟州島と南朝鮮の山やま」 『遙かな山やま』 1971年 11月 新朝社 pp.61~82

宮原免一 (MIYAHARA Toichi)

「濟州島の見聞」 『日本民俗學會會報』 44 1966年 pp.59~62

佐藤信行 (SATO Nobuyuki)

- ① 「濟州島の家と家族」 『都市住宅』 1972年 pp.77~82
- ② 「濟州島の家族・親族」 『アジア文化研究』 7, 1973年 pp.1~49
- ③ 「濟州島の祖上崇拜」 『崇拜研究』 46 (3), 1973年 pp.113~114

- ④ 「濟州島のサドン」 南島史學會編 「南島 — その歴史と文化」 國書刊行會、
1976年 pp.219~231

崔在錫

「濟州島の親族組織」 弘文堂 1976年

玄容駿 (朴健市 譯)

- ① 「濟州島の民話」 三多島の神話と傳説, 大日本繪畫 1978年 9月
② 「濟州島巫俗の研究」 第一書房 1985年

內藤完爾 (NAITO. Kanji)

「五島列島と濟州島の家族 — 末子相續形式の基盤 —」 山岡榮一教授古稀記念論
文集 「地域社會學の問題」 晃洋書房 1979年

櫻井笙子 (SAKURAI. Syoko)

「濟州島の子供の遊び歌」 「東洋音樂研究」 44 1979年 pp.27~49

櫻井哲男 (SAKURAI. Tetsuo)

- ① 「濟州島にながれる仕事歌」 「世界旅行 — 民族の暮らし 5, 創る・祀る」
日本交通公社出版 1982年 pp.90~98
② 「濟州島(城邑里)の民家」 「國立民族學博物館總合案内追録」 民族學振興會
1983年 p.6
③ 「濟州島の海女」 「季刊民族學」 27 1984年 pp.18~25
④ 「濟州島 — 風土・環境・子どもの遊び」 「子どもの世界 — 39冊のフィールド・
ノートから」 1985年, くもん出版 pp.156~159
⑤ 「巫俗儀禮の音 — 韓國濟州島の事例から」 「國立民族學博物館研究報告」
10(3), 1986年, pp.551~573
⑥ 「濟州島民俗音樂の現代的變容 — 續・音樂人類學の試み」 「音樂學」 32(2)
1986年 pp.116~134
⑦ 「ソリの研究」 弘文堂 1989年 2月

張壽根 (松本誠一 譯)

「韓國の郷土信仰」 第一書房 1982年 12月
第5章 濟州島の本郷堂

第9章 濟州島神房の ボンブリ

第10章 濟州島の三ミヨンド

竹田 旦 (TAKEDA, Akira)

『木の雁－韓國の人と家』サイエンス社 1983年

津波高志 (TSUHA Takashi)

① 「濟州島東部地域の相續慣行」『比較民俗學會報』3 1985年 pp.2~5

② 「分居形態から見た濟州島の家族」『沖繩社會民俗學ノート』第一書房
1990年

龜山慶一 (KAMEYAMA, Keiichi)

『漁民文化の民俗研究』日本民俗研究叢書 弘文堂 1986年 3月

第3編 日韓漁民文化の比較

上江州 均 (UEZU, Hitoshi)

『濟州島の民具』『沖繩民俗研究』6 1986年

辻 稜三 (TSUJI, Ryozo)

『韓國濟州島のドングリドーフ』『韓國文化』8(11) 1986年 pp.26~29

松本誠一 (MATSUMOTO, Seiichi)

① 「日本における文化人類學的韓國調査の展開 1960~1980」『東洋大學社會
學部紀要』第25~2號 1987年 pp.37~76

② 「濟州島家族論の検討－世帯規模の東西差－」『民俗學の發展と課題』國
書刊行會 1990年 11月 20日

出口晶子 (DEGUCHI, Akiko)

『濟州島の筏船 周邊地域との技術的比較一』『關西學院史學』第22號 1988年
3月

『濟州島筏船の建造 探船, 漁撈技術』『耽羅文化』8號 濟州大學耽羅文化研究
所, 1989年

植村幸生 (UEMURA, Yukio)

『在日韓國・朝鮮人の巫俗儀禮とその音樂』『東洋音樂研究』第54號 1989年
8月

大林太良 (OBAYASHI. Taro)

『東と西 海と山 日本の文化領域』小學館 1990年 4月

第5章 東アジアの文化領域 p.230 ※私は金宅圭説の領域のほかに濟州島も朝鮮文化領域のなかの一つの獨立の下部領域として認めるべきかも知れないと思っている。

民家・建築分野

野村孝文 (NOMURA. Takuhumi)

『朝鮮の民家』第7章 8 濟州道 濟州道の住宅 ①, ②, 學藝出版社 1981年 9月

藤島支治郎 (FUJISHIMA. Gaijiro)

① 「韓(から)文化探求者の追想①」『季刊 三千里』42號 1985年 pp.162~169

② 「去リル日濟州島」『耽羅』No.1 日本耽羅學會 1988年 pp.1~20

若林弘子 (WAKABAYASHI. Hiroko)

『濟州島草屋の建築尺度』『耽羅』No.1 日本耽羅學會 1988年 pp.82~116

張保雄 (佐佐本史郎 譯)

『韓國の民家』古今書院 1989年 1月

第5章 濟州島の民家 pp.143~187

ハウジング スタディグループ(畑聰一)

『濟州島・樂園の分棟居住』(東アジア現代住居學・韓國) (『建築知識』376號 1989年 7月號 pp.179~214)

※ 漢陽大(朴勇煥)と共同調査 濟州大 梁澤訓 協力 濟州島の鳳城里・下院洞 二集落の現代民家についての調査報告

① 傳統的な原形と變化をとらえる ② 住まい方の實態調査.

歴史・考古學分野

森田芳夫 (MORITA Yoshio)

「史跡散歩シリーズ ② “濟州島” 『アジア公論』 7巻2號 1978年

金奉鉉

① 『濟州島歴史誌』 僑文社 1960年 11月

第1章 濟州島開國説話에 대한 考察, 第2章 島名으로 본 濟州島

② 『濟州島血の歴史 -〈4・3〉武裝闘争の記録-』 國書刊行會 1978年 4月

③ 『濟州島の地名考』 國書刊行會 1988年 2月

森克己 (MORI Katsumi)

「日宋交通と耽羅」 『朝鮮學報』 21~22號 合本 1961年 10月

金奉鉉・金民柱 編

「濟州島人民들의 〈四・三〉 武裝闘争史 -資料集-」 1963年 12月

韓東龜 編著

「濟州島. 三多の慟哭史」 國書刊行會 1975年 12月

姜在彦

「濟州島流配期の金允植」 『季刊 三千里』 6號 朝鮮近代史話⑥ 1976年 pp.92
~106

宋錫範

① 「濟州島の衣食住」 『まんだ』 第1號 1977年 8月 pp.45~48.

② 「濟州島の巫堂」 『まんだ』 第2號 1977年 12月 pp.65~69.

③ 「濟州島の十二景」 『まんだ』 第3號 1978年 4月 pp.60~65.

④ 「濟州島の民話」 『まんだ』 第4號 1978年 7月 pp.64~68.

⑤ 「濟州島の洞窟」 『まんだ』 第5號 1978年 11月 pp.54~58.

⑥ 「濟州島の海女と三多島」 『まんだ』 第6號 1979年 3月 pp.60~64.

⑦ 「濟州島の立石と具塚」 『まんだ』 第7號 1979年 7月 pp.58~62.

⑧ 「濟州島のドルメン」 『まんだ』 第8號 1979年 11月 pp.48~53.

- ⑨ 「古代國家 耽羅時代の濟州島」『まんだ』第9號 1980年 3月 pp.42~46.
- ⑩ 「濟州島の開國神話」『まんだ』第10號 1980年 7月 pp.46~49.
- ⑪ 「濟州島の支石墓」『考古學ジャーナル』第161號 1979年 5月 pp.20~22
- ⑫ 「濟州島の先住民」『まんだ』第12號 1981年 3月 pp.48~52
- ⑬ 「濟州島の古代名稱」『まんだ』第13號 1981年 7月 pp.16~19
- ⑭ 「濟州島古代文化の謎」成甲書房 1984年 10月

岡田英弘 (OKADA Hidehiro)

「元の順帝と濟州島」『アジア文化研究論叢』(1) pp.54~55

金泰能 (大口里子 譯)

「琉球と濟州との關係」『南島史學』20, 1982年

森公章 (MORI. Kimiaki)

- ① 「古代耽羅の歴史と日本 -7世紀後半を中心として-」『朝鮮學報』118號 1986年
- ② 「耽羅方朮考 -8世紀日本と耽羅の通交-」『續日本紀研究』239號 1985年

濟州大學 耽羅文化研究所 (耽羅研究會譯)

「解放後 濟州研究概観」〈歴史・考古分野〉『耽羅研究通信』第8號~17號 耽羅研究會 1986~88年

江坂輝彌 (EZAKA. Teruya)

- ① 「濟州島の史跡と博物館めぐり」『韓國文化』88號 自由社 1987年 2月 pp.4~8
- ② 「濟州島・加波島遺跡と民俗村をたずねて」『韓國文化』92號 自由社 1987年 6月 pp.29~31

高橋公明 (TAKAHASHI. Kimiaki)

- ① 「中世東アジア海域における海民と交流 -濟州島を中心として」『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史學 33 1987年 3月
- ② 「朝鮮外交秩序と東アジア海域の交流」『歴史學研究』573號 1987年
- ③ 「高得宗研究」『耽羅文化』(10) 濟州大學耽羅文化研究所, 1990年

金泰能 (梁聖宗 譯)

『濟州島略史』耽羅叢書1 (耽羅研究會) 新幹社 1988年 2月

John Merrill (文京洙 譯)

『濟州島 四・三蜂起』新幹社 1988年 3月

『濟州島 “四・三事件” とは何か』濟州島 四・三事件 40週年追悼 記念講演會 刊行委員會 新幹社 1988年 11月

箕敏生 (KAKEI. Toshio)

「耽羅王權と日本」『續日本紀研究』第262號 1989年 4月

※「古代耽羅の王權」として『濟州島』2號(耽羅研究會)に再録

뿌리깊은 나무社 (安宇植 譯編)

『新・韓國風土記』第1卷 ソウル・釜山・濟州島 讀賣新聞社 1989年 8月

第3部 濟州島

第1章 砂粒の喜び巖の試練

第2章 三別抄の戦い

第3章 反亂の戦い

第4章 四・三事件と朝鮮動亂

第5章 「濟州立國」への道

第6章 島に繋がる海の道

藤永壯 (Fujinaga. Takeshi)

「一九三二年 濟州島海女のたたかい」『朝鮮民族運動史研究』第6號 不二出版 1989年 12月

※濟州島の民衆蜂起(1880年代 日本人出稼漁業反對闘争, 1901年の李在守の亂, 1948年の四・三蜂起) と並ぶ民衆抗争としてとらえる.

地理・地學・洞窟分野

梶田 一二 (MASUDA Ichiji)

「濟州島の地理學的研究」

『森田一二 地理學論文集』第1部 弘詢社 1976年 8月 10日

- 濟州島の地域性素描 1934.9. p.23
- 濟州島の畜産 1934.4. p.48
- 濟州島の海女 1933.8. p.67
- 濟州島人の内地出稼ぎ 1935.6. p.86
- 濟州島の集落 1939.1. p.120
- 忘れ得ぬ濟州島 1959.11. p.148

高野史男 (TAKANO. Fumio)

- ① 「耽羅古代地理考」『濟州島』1號, 2號 耽羅研究會 1989年 4月~12月
- ② 「地理學者 Lautensachの“濟州島地誌”」『耽羅研究通信』12號 1987年 9月 ※ 獨逸의 地理學者 Lautensach가 1930年代의 濟州島를 測量

立正大學合同韓國濟州島學術調查團

『韓國濟州島の地域研究 學術調查報告書』1988年 3月 立正大學地理學教室

- ① 高野史男 「總説・濟州島の地域性とその地理的・歴史的背景」
- ② 高村弘毅 (TAKAMURA. Koki) 「濟州島の水文環境」
- ③ 澤田裕之 (SAWADA. Hiroyuki) 「濟州島の柑橘生産」
- ④ 大塚昌利 (OTSUKA. Masatoshi) 「濟州島の觀光」
- ⑤ 鈴木厚志 (SUZUKI. Atsushi) 「濟州島における商業中心地の配置と機能」

澤 勳

「濟州火山島の噴出過程と萬丈窟年代との比較研究」『耽羅』No.1 日本耽羅學會 1988年 pp.140~156

小川孝徳 (OGAWA. Takanori)

「濟州島の熔岩洞窟」『耽羅研究通信』第4號 1985年 11月 pp.2~3

神話・傳説・民謠・言語

加藤 泰 (KATO. Yasushi)

- 「濟州島の二つの神話の構造分析」『民族學研究』44巻 1號 1979年
鳥越憲三郎 (TORIGOE. Kenzaburo)
「蛇神と兔山里の事件」『耽羅』No.1 日本耽羅學會 1988年 pp.21~55
金仁顥 監譯
『チャチュンビ傳説』—濟州島のシヤーマン神話, 工作舎 1988年 12月
序文 小松和彦 セギヨンボンプリ／農耕神來歴神話
付録 異界としての濟州島(金仁顥)
司馬遼太郎 (SHIBA. Ryotaro)
『街道をゆく 28 耽羅紀行』朝日新聞社 1986年 11月
※「週刊朝日」連載 (1986.3.21號~9.19號)

梁淳珽

「濟州島の流配文化」(『アジア・アフリカ文化研究所 研究年報』1988年 第23號) 東洋大學 A.A文化研究所 1989年 3月

服部 龍太郎 (HATTORI Ryutaro)

『濟州島民謠紀行』未來社 1972年 5月

高橋亨 (TAKAHASHI. Tooru)

『濟州島の民謠』寶蓮閣 1974年 10月

安田吉實 (YASUDA Yoshimi)

「濟州島方言における接尾辭の考察」『朝鮮學報』第48輯 1968年 7月

文學作品・旅行記 記錄文學

金石範

- ① 『鴉の死』講談社 1973年 12月
- ② 『萬徳幽靈奇譚』筑摩書房 1971年 11月
- ③ 『夜』文藝春秋 1973年 10月
- ④ 『詐欺師』講談社 1974年 7月

⑤ 「火山島」(大佛次郎賞受賞) 1部 1983年 6月, 2部 1983年 7月, 3部
1983年 9月 文藝春秋社

⑥ 「故國行」岩波書房 1990年 8月

金泰生

① 「骨片」創樹社 1977年 9月

② 「私の日本地圖」未來社 1978年 6月

金時鐘

「猪飼野詩集」東京新聞出版局 1978年 10月

金吉浩

「汚染地帯」「現代文學」11月號 1979年

「靈歌」「文學精神」8月號 1987年

「解氷」「月刊 觀光濟州」2月號 1988年

「방황의 늪」「月刊 觀光濟州」6月號 1989年

梁石日

「狂操曲」筑摩書房 1981年 11月

梁淳祐

「一人よがりのモノローグ」「北海文學」1989年 11月

元秀一

「猪飼野物語」草風館 1987年 7月

「キンモクセイ」「濟州島」1號 新幹社 1989年

※「李君の明日」として NHK ドラマ スペシャルで放映

金贊汀

「異邦人は君が代丸に乗って」(岩波新書) 岩波書店 1985年

金榮・梁澄子

「海を渡った朝鮮人海女」房總のチャムスを訪ねて 新宿書房 1988年 5月

※「チャムス歴史とその出稼ぎの要因」

張漢喆 (宋昌彬 譯)

「漂海録」耽羅叢書 2(耽羅研究會) 新幹社 1990年 12月